

2024. 7. 24.(수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7월 23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 부서 : 글로벌도시정책관 도시외교담당관

도시외교담당관

김미선

02-2133-5260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: 6쪽

도시외교팀장

김수현

02-2133-5262

### 오세훈 시장 7박 9일 프랑스·중국 출장길... 기후위기 대응·경제 교류 나선다

- 7.24.(수)~8.1.(목), 파리·충칭·베이징 방문... 경제·첨단산업 발전 방안 구상
- 파리지 주최 기후행동시장회의·C40운영위원회 참석... 기후위기 공동 대응 전략 논의
- 충칭에선 바이오산업 생태계 성장위한 협력 초석 마련... 충칭시장 만나 경제협력 약속
- 오 시장, 베이징시장과 6년 만에 한·중 수도 고위급 면담, 도시외교의 새로운 활력 기대

- 오세훈 서울시장의 파리지 주최 ‘기후행동시장회의’ 및 ‘C40 운영위원회’ 참석과 중국 주요 도시와의 경제·문화 교류·협력을 위해 24일(수), 7박 9일 일정으로 프랑스·중국 출장길에 오른다. 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대표단은 출장 기간 파리와 충칭,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.
- 이번 출장에서 오 시장은 기후분야 국제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도시들과 기후 위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, ‘2024 파리올림픽’ 관련 행사에 참석한다. 이어 중국 주요 도시의 바이오·로봇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방문과 M OU 체결, 스타트업과 대학창업기업 인큐베이팅 현장 등 주요 일정을 통해 미래첨단도시 조성을 위한 구상에 나선다.
- 오세훈 시장은 프랑스 ‘기후행동시장회의’와 중국 ‘베이징·충칭’ 초청을 받았고, C40 부의장으로서 C40 운영위원회의 참석 의무가 있다.

<파리시 주최 기후행동시장회의·C40운영위원회 참석… 기후위기 공동대응전략 논의>

- 오 시장은 25일(목) 오전 8시 30분<현지시간> 첫 방문도시인 파리에서 개최되는 ‘기후행동시장회의’에 참석한다. 이번 회의는 에너지와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주제로 진행되며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이 이뤄낸 기후위기 대응 성과를 세계도시와 공유한다.
  - 기후행동시장회의는 올해 파리시 주최로 개최되는 첫 행사로 아테네, 코펜하겐, 로마 등 36개 도시 시장이 초청을 받아 참석할 예정이다.
  
- 이어 오후 2시<현지시간>에는 서울시가 부의장 도시를 맡고있는 ‘C40 운영위원회’에 참석한다.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빌딩의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‘기후동행건물프로젝트’ 등 서울의 기후 리더십을 소개한다.
  - C40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 대도시 시장 연합체로, 서울·도쿄·파리·몬트리올 등 15인의 운영위원이 부의장을 맡고 있다.
  
- 같은 날 오후 4시<현지시간>에는 ‘아레나 파리 쉬드’에서 서울시청 소속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한민국과 독일의 핸드볼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을 응원할 예정이다.
  - 이번 파리올림픽에는 태권도, 체조, 핸드볼, 스포츠킴라이밍, 펜싱 5개 종목에 서울시청 소속 선수단 11명이 참가했다.
  
- 둘째 날인 26일(금) 오전에는 파리에서 유일하게 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앙드레 시트로엥공원(Parc André Citroën)을 방문해 세계에서 가장 큰 계류식 헬륨기구인 ‘발롱 드 파리 제너럴리’(Ballon de Paris Generali)

와 공원 내 다양한 건축물과 정원 공간을 관람하며 정원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접목점을 찾는다.

- 발롱 드 파리 제너럴리 제조사인 ‘에어로필 사스(Aerophile Sas)’는 8월 개장 예정인 여의도공원 ‘서울달’ 제조사이기도 하다.

- 오후 2시<현지시간>에는 파리를 찾은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 문화의 다채로운 매력을 소개하기 위한 복합공간이자 스포츠 외교의 거점으로 활용 중인 ‘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’를 찾는다. 이후 파리지 주최 네트워킹 행사 및 올림픽 개막식 관람 행사 참석을 끝으로 파리 일정을 마무리한다.

<충청에선 바이오산업 생태계 성장위한 협력 초석 마련… 충청시장 만나 경제협력 약속>

- 이후 중국 충칭시로 이동한 오 시장은 28일(일) 오후 2시<현지시간> 첫 공식 일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백범 김구 선생 흉상 앞에서 묵념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. 서울시장이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
- 청사 방문 후 독립유공자 후손과의 간담회를 갖고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서울시의 보훈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.

- 오후에는 충칭시 도시계획전시관(重慶城市规划展覽館)을 방문해 전시관을 둘러보며 수변 개발과 야간명소 조성과정 등을 살펴본다. 현재 서울시도 도시공간 철학을 시민과 공감하기 위해 서울시청 지하에 도시전시관을 조성 중이다.

- 충칭 방문 둘째 날인 29일(월) 9시<현지시간>에는 ‘18제 전통품모지구’와 ‘충칭호광회관’을 방문해 최근 관광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충칭의 독특한 매력과 역사·문화를 확인한다.
  - ‘18제 전통품모지구’는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결합한 목조 건물이 특징적인 곳이며, ‘충칭호광회관’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옛 회관건물이다.
- 이어 오후에는 ‘충칭다디생명과학단지’를 찾아 중국의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을 청취하고, 서울시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.
  - ‘충칭다디생명과학단지’는 60만㎡ 면적에 150여개 기업이 연구활동을 펼치는 산업클러스터로 제약산업 기둥역할을 하고 있다.
- 이날 오후 5시<현지시간>에는 후헝화(胡衡華, Hu Henghua) 충칭시장을 만나 문화·관광 분야 도시외교 활성화와 경제·산업분야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다. 면담 후엔 ‘서울바이오허브’와 ‘충칭양강신구개발투자그룹’간 업무협약식도 참석해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활발한 기술·인재교류에 힘을 보탠다.

<오 시장, 베이징시장과 6년 만에 한-중 수도 고위급 면담, 도시외교의 새로운 활력 기대>

- 다음날인 30일(화) 베이징으로 이동한 오 시장은 베이징대학교를 방문해 한중 우수 청년 인재 교류 활성화 방안을 공유한다.
- 이후 베이징시청에서 인 용(殷勇, Yin Yong) 베이징시장과 면담을 갖는다. 이번 면담은 6년 만에 열린 양국 수도 고위급 만남이다.
  - 인용 베이징시장은 중국인민은행 부총재를 역임하고 지난 '23년 베이징 시장으로 취임했으며 중국 31개 성·직할시·자치구에서 최연소 성장급 인사다.

- 서울과 베이징은 1992년 한중수교 다음 해에 친선결연을 맺고, 지난 30여 년간 문화, 관광,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. 이번 만남을 통해 양 도시가 직면한 아젠다 등 경제 중심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도시외교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  
- 베이징에서의 둘째 날인 31일(수) 오전에는 베이징 이좡(亦庄)경제기술개발구에 위치한 중국 최초 성(省)급 규모의 ‘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혁신센터’를 방문해 베이징시의 로봇산업 지원 등 육성정책을 청취하고 서울시 로봇산업에 접목할 방안을 찾는다.
  - ‘베이징휴머노이드로봇혁신센터’는 베이징시 경제정보화국이 주관하고 베이징청머시너리일렉트릭, 샤오미로봇, 유비텍, 베이징이좡로봇과기산업발전이 공동으로 조성한 곳이다. 최근 전기구동만으로 작동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‘텐궁(天工)’을 공개한 곳이기도 하다.
  
- 오후에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‘중관촌’을 찾아 주요 창업지원 시설을 둘러보고 국내 창업생태계 발전방안과 스타트업 육성 전략을 공유하는 일정을 이어간다.
  - 바이두, 레노버, 텐센트, 샤오미 등 중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 다수가 ‘중관촌(中關村)’에서 탄생했고, 현재 50여개 창업지원서비스 기관이 입주해 3,000여개의 인큐베이팅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.
  
- 이어 오 시장은 오후 5시<현지시간>, 베이징 ‘우커송 완다백화점’에서 진행되는 서울홍보 프로모션 ‘SEOUL之乐 in BEIJING(서울지락 인

베이징)’에 직접 참석, 베이징 시민들과 만나 서울의 매력을 알린다.

- 이번 프로모션은 30일(화), 31일(수) 양일간 서울의 라이프스타일, 서울의 멋(美), 서울의 맛(味) 홍보 부스 운영과 K컬처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.

- 마지막 날인 1일(목) 오전 오 시장은 ‘베이징 미래과학성(未來科學城, Future Science City)’을 방문해 로봇·의료·에너지분야 정책을 청취하고 아시아 대표 첨단산업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상한다.

- ‘베이징 미래과학성’은 전세계 과학기술 인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, 문화, 교육 등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.

- 이후 베이징 현지에 진출해 있는 대·중견기업과 중소기업, 스타트업 등 30여 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한다. 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시장은 중국 내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애로사항 산업 및 경제 현황을 청취하고 안정적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현지진출 기업 지원 방안과 서울의 경제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중국 전체 일정을 마무리한다.